

# 코로나19 여파 중기 애로 해소

## 중기중앙회, 감염병 극복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지역별 피해상황 파악 통한 현장 밀착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은 오늘 실시되며 오는 25일에는 전국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 논의가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영남권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업종별 애로사항으로는 수출입관련 조합들은 '중국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납품차질과 주문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중국 방문기회 제한 및 대외 활동 기피로 인한 영업활동 차질'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유통·서비스관련 조합들은 '각종 모임·외

출자제로 인한 내방고객 감소와 매출 급감'을 비롯해 '물류센터는 리렌 등 일부 생필품의 수급 애로'도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주변 물량이 줄어들어 신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지연시키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병행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중소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 정책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라

며,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 대출금리 인하(3.4→2.9%)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포함해 대출금 만기연장, 부금 납부 유예를 실시했으며, 4일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제균 티슈 6천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전담 영업점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6일부터 경원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를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 영업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자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 영업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피해 기업 지원대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등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는 은행영업시간 중 방문하지 못

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주변 상가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상담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긴급자금 지원을 돕고, 2금융권 이용 고객에게 중금리 대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용등급 관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실질적인 가치분소득이 높아졌으며,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부채관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고객의 상담수가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북은행 따뜻한금융클리닉 정동필

센터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은행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은행에서 금융정보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은행과 고객이 서로 상생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출상품' (한도 1조원, 금리 2.62%~2.91%)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보증대출상품' (한도 200억원, 금리 0.58%~0.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대출' (한도 5000만원, 금리 1.5%) 등을 통해 3월 17일 기준 777건, 865억 원 가량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 건협-굿네이버스, KOICA와 시민사회협력 신규사업 약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와 국제구호개발 NGO 시민사회단체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이사장 이일하, 이하 굿네이버스)은 최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과 '탄자니아 코메섬 지역사회 보건환경 개선을 통한 초등학교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건협과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10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 시민사회협력 공모에 제안해 선정됐다. 건협과 굿네이버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국립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현지 지역정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현지 지역 13개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영양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생 5,000여명에 대한 기초검사, 기생충 및 빈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학교 및 지역 우물, 화장실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보건환경도 개선한다. 한편, 본 사업이 진행되는 탄자니아 코메(Kome) 지역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굿네이버스에서 국제빈곤 퇴치기여금(현, 국제질병퇴치기여금) 지원으로 기생충관리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김윤상 기자

### 금융위, 코로나19 추경 8147억 확보...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8147억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 추경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는 4125억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4021억7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1.5% 내외 초저금리 대출 공급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보에 각각 4125억원, 58억원을 출자한다. 또 다음달 초부터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3조5000억원 규모의 1.5% 저금리 대출자금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신보에 603억75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 및 연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50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조6800억원의 P-CBO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보에 총 280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게 3000억원의 특별보증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각각 240억, 32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조기극복될 수 있도록 확정한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양봉산물'로 환절기 건강 지켜요"

농진청, 면역력 증진에 도움... 항산화 등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양봉산물을 19일 소개했다. 환절기는 큰 일교차 등으로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등의 유행으로 꾸준한 면역력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봉산물처럼 좋은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예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사용된 양봉산물의 항산화·항염증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벌꿀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몸에 흡수가 빨라 에너지원으로 우수하다. 설탕보다 단맛은 강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비롯해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카시아꿀, 밤꿀, 피나무꿀, 때죽나무꿀, 잡화꿀에서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꿀은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천연 생리활성물질로 건강효과와 피부미용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국산 도토리 화분에는 항산화 성분이 다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젤리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단백질, 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갖고 있다. 로열젤리를 섭취한 쥐는 림프절과 림프구가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로열젤리의 주요 성분인 10-HDA 함량이 외국산보다 국산에서 높게 나타났다. 프로폴리스는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과 항균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피부에서의 항균기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고시돼 있다. 또한 항염증과 항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꿀벌의 양봉산물로 만드는 건강향 요리' 책자를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양봉산물의 효과와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농업과학기술원(lib.rda.go.kr)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이만영 농촌진흥청잠사양봉소재과장은 "환절기, 우리 양봉산물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면역력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우리 양봉산물의 효능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스타 소상공' 모여라

### 전북도-도 소상공희망센터 전북 스타소상공 육성사업 참가업체 31일까지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는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2020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찾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성공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대면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업체가 본선에 진출한다. 3차 TV 공개대선을 통해 전문평가단과 도민 청중평가단의 Two-Track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 '스타소상공인'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R&D, 마케팅, 해외진출, 시설 개보수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경영지원금이 차등 지급 될 예정이며(1등:1천만원, 2등:5백만원), TV 방송홍보, 3천만원 한도의 저리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희망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뿌리와의 같은 소상공인의 생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전북도와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가 야심차게 실시하는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에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모집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jbs.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희망센터 063-717-1301로 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로부터 고객·직원 보호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투명 가림막 설치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고객과 직원 보호를 위해 영업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밖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은 가로 60cm, 세로 50cm 크기로 고객과 직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가림막 설치로 코로나19 비말감염 위험과 고객 불만을 덜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고객과 직원 보호를 위해 영업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 한전 전북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한전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내식당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구내식당 내 식탁마다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는 맛있게, 대화는 나중에"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밀집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해 '건물폐쇄'라는 극단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식당에 입장하기 전 손소독제를 반드시 사용토록 했으며, 아침 출근시간(8~9시)에는 한전 선로 진단장비인 열화상기기를 이용해 전 직원 발열체크를 매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부 현원의 20% 수준에서 OA기기를 활용해 재택근무도 진행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LX-임실군, 공간정보 협약

임실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임실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행정리 262개, 반 751개, 자연마을 경계 등에 대하여 경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확보가 가능해졌다. /임실=진홍영 기자